

호남 광역 3단체장, '500만 메가시티' 등 인구위기 대응 촉각

오는 4일 '호남권 정책협의회' 초광역경제협력체 구축 등 논의 동상이몽 입장차에 우려 목소리도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전북지사 등 호남 광역단체장이 지역소멸 위기 등 현안을 놓고 7년 만에 '3자 회동'에 나선다.

이번 회동은 2017년 3월 나주에서 열린 정책협의회 이후 7년 만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가 오는 4일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연다.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2004년부터 호남 광역 3단체장이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던 협의체로, 2008년까지 각 지역을 돌며 총 5차례 개최된 이후 중단됐다. 2014년 6년 만에 재개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는 실무협의회를 열고 회의안건 등을 조율 중이다.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지역소멸과 인구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호남

권 500만 메가시티와 초광역경제협력체 구축, 호남권을 아우를 대형 프로젝트 발굴,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공동노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이슈로 떠오른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는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장은 "수도권 1극 체계를 깨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광주와 전남, 나아가 호남권 초광역 협력을 강조해 왔고 전남지사 역시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로 투 트랙 전략을 펴고 있고 전북 역시 지방소멸 위기감 속 "시·도 경계를 넘어 통합해서 힘을 합치자"는 데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광주는 군공항 등 지역현안을 놓고 전남도와 평행선 같음을 보이고, 전남은 메가시티보다는 전남의 비교우위 산업을 앞세워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동상이몽의 입장차가 드러난 상황이다.

전북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1

호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를 놓고 내부진통을 겪고 있고, 정부의 초광역권 계획에서 빠진 강원, 제주 등과 초광역 협력을 모색하는 등 '호남권 메가시티'를 두고는 3인3색이어서 지방소멸시대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호남권 초광역 협력을 두고는 메가시티, 경제공동체, 광역경제권, 광역연합 등 개념과 명칭에 대한 교통정리조차 안되고 있는 데다 2017년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 공동사업으로 합의한 '전라도 천년기념사업'을 두고 잡음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점도 오랜만의 회동을 앞두고 골치아픈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호남권 광역단체들이 공식적으로 회동하는 건 7년 만"이라며 "호남권 3개 시·도의 실질적인 공동 번영을 위한 현안과 사업을 발굴하고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창원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유치

창원특례시는 국내·외 여성 지도자들이 결속하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유치는 경상남도과 창원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결과로, 글로벌 네트워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중요한 행사가 될 전망이다.

전 세계 한민족 여성들이 모여 경험과 지식,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 여성 리더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제 행사로 2025년 8월 말쯤 창원시에서 제 24회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창녕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

창녕군이 1일부터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자는 120일간 총 8회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가격은 1회당 7~8만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회당 무료에서 최대 2만4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준비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창녕(경남)=이도식 기자

밀양시

'말과 나' 프로그램 시범운영

밀양시가 '말과 나'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시범사업'의 하나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말보르스마장과 치유농업발전협회가 함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재구성해 오는 8월 16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이어질 예정이다.

학생들은 말과의 교감을 통한 자존감과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말 관찰하기, 그루밍하기, 말이 좋아하는 텃밭 채소 기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밀양(경남)=손병호 기자

여주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확대

여주시(시장 정기명)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지역사회의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소득기준 확대로 올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혜택을 받을 대상은 600여명이 추가돼 총 29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대구시민 60% "민선8기 정책 긍정적" 부산시, '원스톱기업지원단' 운영

1주년 조사비 긍정비율 3.8%p 올라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등 선호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최우선 과제 선정

대구시가 18세 이상 대구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인 60.6%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번 조사는 시가 쉼터(리얼미터)에 의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106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온라인을 통해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민선 8기 1주년 조사때보다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긍정비율이 3.8%p나 높은 60.6%였다. 반면 부정비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8기 핵심정책에 대한 선호도에

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같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혁신적 정책을 가장 선호했다. 그리고, 신천수변공원화 사업과 대구대공원 착공 등 획기적인 시민 여가공간 조성에 대해서도 선호도가 매우 높았다.

민선 8기 핵심정책 선호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들은 대부분 시민 중심 제감형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는 현장에서 시민들은 많은 지지와 뜨거운 호응을 보내줬다.

앞으로 바라는 미래정책에 대해서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대규모 투자유치, TK신공항 건설이 대구미래 최우선 과제로 선정됐으며, 이 같은 중장기 정책사업은 직접적인 성과를 당장 체감하기 어렵게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경제회복에 대한 열망이 크게 반영돼 최우선 순위로 꼽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박형준 시장, 전담 1호 공무원 때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직접 방문

박형준 부산시장이 원스톱기업지원 전담 1호 공무원이 돼 직접 산업현장을 방문해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부산시는 박 시장이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살피며 기업의 투자가 신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민선 8기 후반기 돌입 첫 현장으로 르노코리아(주) 부산공장(사진)을 방문한다.

시는 기업 지원 전담 조직인 '원스톱기업지원단'을 운영한다. 지난달 27일 '제44차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원스톱 기업투자 신속 지원방안'의 첫 사례다.

원스톱기업지원단은 ▲원스톱 기업지원 체계 구축 ▲투자사업장 걸림돌 제거 ▲기업투자지원 역량강화 등 3대 전략과 8대 과제로 현장에서 기업을 밀착 전담 지원한다.

지원단은 기업 유치단계를 넘어 유



치기업의조기 정착및애로사항등사후관리를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동시에투자유치 직후 진행되는 산단·공장 가동등행정절차 이행과정의기술적인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혁신 성장 강화를 도모한다.

박 시장은 르노코리아의 신차·개발 생산 프로젝트인 '오로라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현장에서 신차 개발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렛츠런파크 부경, 馬 통해 국가현안 해결

부산시 강서구청과 업무협약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는 결핵과 출산 기피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 강서구청과 함께 힘을 보탠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지난달 27일 부산시 강서구청과 '말(馬)을 활용한 정부 중점 추진과제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기관이 보유한 말과 전문 인력 등 말 산업 역량을 활용해 국가적 현안 해결을 돕기 위해 올해 4월 말을 통한 사회공헌사업을 발굴에 나섰다.

이후 결핵·출산·양육·경력 단절

등 사람의 생애주기별 문제에 접목해 말을 매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강서구청 등 부산 강서구 4개 기관과 협업을 힐링 승마와 홀스타라피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사업에 추진력을 불어넣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하반기에는 ▲조손가정을 초대해 세대 간 화합과 가족 기능 향상을 돕는 홀스타라피 ▲결혼적령기 미혼 남녀에게 승마를 매개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마공원관 '나는솔로' ▲결혼과 출산을 앞둔 부부의 웨딩 및 가족 스냅 촬영을 지원하는 촬영 프로그램 ▲심리 치유가 필요한 지역민을 돕는 힐링 승마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하동군, 도내 첫 농어촌 '100원 버스' 운행

전 군민·외부 이용객 대상

하동군민들이 7월부터 농어촌 '100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동군은 전 군민과 농어촌버스 외부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100원 버스를 1일부터 경남 도내에서 최초로 운행한다.

군은 지난해 1월부터 도내 최초로 관내 42개 노선 10대의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 2500여명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를 운행해 왔다. 이는 농어촌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교통복지 실현하고, 코로나19로 침체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촉진

하고자 시행됐다.

하동군은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학생들의 통학 시간 배차, 시외버스와의 연계, 농촌형 교통모델 노선 정비, 주민 불편사항 해소, 버스기사 처우 개선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2013년 농어촌버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2대 증차와 함께 대대적인 노선 개편을 단행했다. 노선 개편은 그간 일부 정류소에만 정착하던 농촌형 교통 모델을 특정 경유지가 아닌 전 운행 구간 정류장에 정착하게 해 농어촌버스의 부족한 배차를 보완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